

# “통행금지 길어져 공장 멈추면 어쩌나”

## 北 개성공단 통행 이틀째 차단 전남 2개 입주업체 좌불안석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이틀째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남지역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내 조업과 생필품 조달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4일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업체는 담양의 A공업과 안동의 B산업 등 2곳으로 알려졌다. 담양의 A공업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진출,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선을 생산하고 있다. 4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현지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해 5억여원의 월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확대해야 하는 등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B산업은 미역과 톳, 다시마, 밤 등을 가공하는 업체로, 직원 3명을 파견하고 현지 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매일 25t 차량 2대 분량의 원료를 실어나르는 이 업체는 확보된 재고 원료가 10일분에 불과해 통행금지가 길어지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통행금지 이틀째가 되면서 남측 근로자들의 귀환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으로 넘어오는 임금을 신청한 인원은 222명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한 한 근로자는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군인들이 세관에 평소의 두 배나 배치되는 등 세관 검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5일은 ‘청명일’로 북한의 휴일이라 6, 7일 주말로 이어지며 개성공단은 사흘 연휴에 들어간다.



북한이 우리 측으로 귀환한 지 이틀째인 4일 오후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차량 지붕에 짐을 가득 싣고 군사보계선을 넘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연휴를 맞아 예정대로 출근이 안됨을 알렸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흑시 모를 출경을 기다리던 근로자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던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조업에 큰 차질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도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 기업회와 회장단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해조류와 패류 등 해양 생물자원을 활용해 해양바이오 기능성 물질과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다시마와 김, 전복 등 해조류, 패류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112만9000t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는 해양생물의 보고(寶庫)다.

우선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전복 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투입한다. 전복통조림, 마른 전복, 전복화장품 개발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해양 바이오산업센터에서 연구개발을 맡는다. 오는 2016년까지 중국과 홍콩 등 전복 선호도가 높은 중화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이른바 ‘맞춤형’ 제품을 개발,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해양생물자원 신성장 동력 육성

### 전남도, 전북·다시마·김 활용 제품 개발

전남도는 해조류와 패류 등 해양 생물자원을 활용해 해양바이오 기능성 물질과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다시마와 김, 전복 등 해조류, 패류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112만9000t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는 해양생물의 보고(寶庫)다.

우선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전복 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투입한다. 전복통조림, 마른 전복, 전복화장품 개발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해양 바이오산업센터에서 연구개발을 맡는다. 오는 2016년까지 중국과 홍콩 등 전복 선호도가 높은 중화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이른바 ‘맞춤형’ 제품을 개발,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은 안동과 진도 등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기준 6500t이 생산됐으며 전국 대비 97%, 소득액은 2400억원

에 달한다.

전남도는 또 다시마와 김 등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와 가공식품 개발, 디자인·브랜드 개발에도 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조류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식품 소재 제품 개발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입맛에 맞는 식재료와 다과류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시마와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함께 친환경 수산물 인증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해양생물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미역귀를 이용한 후코이단, 톳 추출물을 활용한 다이어트 식품, 젤리, 쌀국수, 원두말발(해조류)과 모자반을 이용한 주름개선 마스크 팩과 기능성 미백화장품 등 5종을 개발했다.

## 4차례 탈북·입북 반복 탈북자

### 연평도서 어선 훔쳐 또 월북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

군 당국은 탈북자 이철철(28)씨가 연평도에서 어선(9t·진흥3호)을 훔쳐 3일 오후 10시49분께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북한을 탈출해 2007년 3월 20일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다. 그는 2개월 전에 연평도로 들어와 꽃게잡이 어선인 진흥3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입북하고 또 다시 탈북했다가 입북하는 등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과거 4차례나 탈북과 입북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월북 어선은 연평도 동남방에서 연안을 거쳐 NLL로 향했다”면서 “오후 10시46분께 NLL 남방 900m 지점에 있는 어선을 레이더로 포착했고 즉시 고속정이 출동했으나 이미 NLL을 월선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선은 주간엔 어업활동을 마친 후 부두에 정박한 상태였다”면서 “꽃게잡이 선원인 이씨가 밤에 어선을 불법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北 중거리미사일 동해안 이동 美, 광에 미사일요격체계 투입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미국이 광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

북측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북한이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면서 “현재까지 정보 분석 결과 이 물체는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미사일에 탄두가 장착됐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무력시위 또는 대미 위협 차원에서 이동시켰는지에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기차를 이용해 이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는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000~4000km로

광까지 타격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50발을 실전 배치했으며 길이 12~18.9m, 지름 1.5~2m이다. 지난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전후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정보자산을 가동해 미사일 동향을 정밀 추적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한미일 정 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 중거리미사일 KN-08로 보이는 물체를 동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 이달까지 항행금지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첨단 핵타격 작전이 최종 비준됐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천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 핵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정보자산을 가동해 미사일 동향을 정밀로 파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광에 투입하기로 했다.

THAAD는 고도 150km에서 초속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트럭 탑재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AN/TPY-2 추적레이더, 통합 사격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 “금강산 관광재개 밝히면 남·북간 대화 풀릴 것”

박지원, 차대통령에 제안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기숙사 건립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 (남북 간) 대화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제안하면서 “그러면 북한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럴 때 특사를 교환하면 장기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이야기한대로 부시 정권

의 잘못이고 현재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4·24 재보선에서 서울 도원병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도 “당선되더라도 국회에 들어오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인데, 송호창 의원과 함께 두 분이 활동하면 정치적 활동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훌륭한 분이었고 대통령 후보였지만 국회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여야 정치여서 안 후보가 더 크게 보고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충고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 신문산업진흥안 담은 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전병헌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4일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률에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산업 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신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신문진흥특별법)’은 인터넷 미디어 활성화 등으로 위기를 겪는 신문산업에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신문의 인쇄와 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문진흥특별법의 의결을 전제할 것으로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때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답/ 자동차 대출
- ▶ 명품중고 가방/시계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 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
  - 오차동 대지 300㎡ 건물 7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9천만 1억9천만, 용적 1억9천만
- ◆상가매매◆
  - 신왕동 첨단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매가 8억원 (보증금 5천만 용적44㎡ 원 이동통신점 임업예정)
  - 신왕동 첨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각역량
- 분양
  - 용두동 첨단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특정상권) 매매가 4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
  - 용두동 첨단지구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특정상권) 매매가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편양가
- 상가임대
  - 신왕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40만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임대지역(예상구역)
  - 신왕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관도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임대지역) 예상구역
- 상가주택매매
  - 신왕동 하남지구 1층점포32, 2층 투-쓰리(복3개) 3층복층상업점 월수익550만 7억9천만
  - 월전동 용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6억9천만

### 중랑공인중개사

- ♣부동산 구함
  - ☆.이마트 밀집지역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충간 대로변 시육부지 150평 내외
-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 ☆.사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 매매가 평당60만원
-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문동7번 시내버스중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은)전.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르지만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8-1772, 011-602-2532  
(광주주변 신문잡지,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부동산·여행·시영 상담)